

David Turner 박사, 요한복음, 세션 14,

요한복음 12:1-50

© 2024 데이비드 터너와 테드 힐데브란트

요한복음을 가르칠 때 Dr. David Turner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것은 14회기,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감, 요한복음 12:1-50입니다.

우리는 방금 요한복음 11장과 요한복음의 장엄하고 절정적인 기적, 즉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만들었다는 사실은 놀랍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놀랍고도 실망스러운 점은 부활로 인해 종교지도자들이 더욱 예수님을 없애겠다고 결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응답으로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이전에 하셨던 것처럼 에브라임이라고 알려진 일종의 모호한 장소로 가셨다가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로 잠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단지 자신의 개인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한동안 예루살렘을 떠나셔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은 유월절이 다가오자 긴장된 상태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남겨두고 예수께서 에브라임으로 가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가 축제에 전혀 참석하는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공의회는 지난 회의를 토대로 11장 56절에서 예수를 보는 자마다 신고하여 잡게 하라는 말씀을 돌이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2장에 이르고 예수님은 베다니,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의 집으로 돌아오신 후 그 도시로 들어가십니다.

공관복음 전통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요한의 그림으로 다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승리의 입성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관습에 따라 먼저 해당 장의 서술적 흐름을 살펴본 다음 다시 돌아와서 해당 장의 몇 가지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제 에브라임에서 감람산 바로 동쪽 베다니로 돌아오셨고, 우리는 나사로와의 만찬에서 마리아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제부터 나사로는 예수와 밀접하게 연합하게 될 것이므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일 뿐만 아니라 나사로도 죽이기로 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분이 행하신 표징과 그분의 메시지의 실제성, 그리고 지상에 있는 아버지의 대리인으로서의 그분의 능력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없애려면 나사로를 없애야 합니다. 불행하게도 자신이 문제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증인을 죽여야 하는 갱스터 영화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큰 팡파르와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승리의 입성이라는 공관 전통을 다시 살펴보고 그리스인으로 확인된 일부 사람들이 있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였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복음에서 무엇을 나타낼 수 있는지.

챕터에서 좀 애매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실제로 그를 본 것인지 아닌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들이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본문은 그것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장에 아마도 요한복음에서 가장 슬픈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저자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과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을 되돌아보고 반성하며 긍정적인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숙고합니다. 그에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요한복음에서 가장 슬픈 구절인 이 구절은 거의 애처로운 통곡과도 같습니다.

12:37 예수께서 그들 앞에서 많은 표징을 행하신 후에도 그들은 여전히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마치, 당신은 무엇을 할 건가요? 그는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그분께서는 계속해서, 해마다, 축제마다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 특히 일곱 표적이 나사로를 살리는 일에 절정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패배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즉시 이사야의 예언이 현실화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것에 놀라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사역에 대한 일종의 마지막 요약과 그에 대한 신학적 접근 방식으로 나아가고, 비록 그들이 자신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인 12장 44절부터 50절까지를 읽어보면 마치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가르치신 모든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한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니 함께 읽고 지금까지의 모든 내용을 기억하고 이것을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공적 사역의 요약으로 활용합시다. 나를 믿는 자는 44절부터 내가 말하노니 47절이 아니라 나를 믿는 자는 나만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라.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이는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머물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하여도 내가 그 사람을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니라.

나를 배척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심판하실 분이 계십니다. 내가 한 바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들을 정죄할 것이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을 다 말하라고 명령하셨느니라.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44절부터 50절까지의 말로 결론을 내리는 요한의 이야기의 흐름입니다. 적어도 내 마음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일종의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이 복음서 전체를 일종의 간단히 말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좀 더 주제별로 본문을 다시 살펴보고 요한복음에서 이러한 일이 전개되면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주목합니다.

그래서 불행하게도 우리는 끓어오르는 갈등이 정점에 도달하고 있다고 이전에 말해왔고, 내 생각에 이 장은 그것이 최종 단계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 슬라이드에 나열된 모든 텍스트를 다시 살펴보는 데 시간을 할애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처음 방문했을 때 성전을 청소하고 그곳에서 그의 권위가 도전을 받았던 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다음 장에서 반복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이 형성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복음 전체를 통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믿는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는 인상이 아주 분명합니다. 그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일을 운영하는 더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그들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 이 무렵에는 적어도 온건하게 예수님을 지지했던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끓어오르는 갈등이 정점에 이르고 나사로의 부활이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다른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결의와 분노를 고조시킬 뿐입니다. 따라서 11:45에 따르면 더 많은 신자가 있지만 예수님이 그를 제거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의 편에서는 더 많은 동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로의 부활은 예수님의 추종자들을 모두 흥분시키는 것으로 묘사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유월절을 맞아 벌써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는데, 방금 죽은 사람을 살린 선지자가 동네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만 죽일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도 죽여야 하므로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요한복음의 본문을 반복해서 본 후, 갈릴리 가나 2장에서 시작하여 이제 우리는 마침내 예수님의 때가 이르렀다는 사실을 언급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인자가 참으로 영광을 얻을 때가 이르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이제 자신의 때가 짧고 죽음이 매우 가까웠음을 매우 현실적이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장에서 흥미로운 또 다른 점은 내가 방금 읽은 본문 앞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 보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갈릴리 벳새다 사람 빌립에게 청하여 청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래서 빌립이 안드레를 만나러 갔는데, 안드레와 빌립이 차례로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러 나가서 그런 일이 없다고 말하는 다음 구절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약간 이상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종의 왼쪽 매달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 후에 말씀하시는 것은 빨간 글자 구절이, 여러분이 그것을 그렇게 부르기를 원한다면, 23절부터 28절까지, 그가 나가셨는지 그리고 이 말씀은 자기를 뵈고 싶어하는 헬라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인지, 아니면 단지 헬라인들의 요청을 묵상하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인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누구인가? 유월절에 예배하러 오는 그리스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단지 순례 여행을 온 사람들일 수도 있고, 아마도 단지 호기심을 찾는 사람들, 관광객들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의 유월절에 관해 들었고 그 도시가 얼마나 혼잡한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보러 가야 하는지에 대해 들었고 아마도 그들은 그런 종류의 호기심에서 왔을 것입니다. 나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들은 축제 때 예배하러 올라갔고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서 거기에 있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 보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느 정도 디아스포라 생활을 하며 헬레니즘화되어 그리스 문화에 익숙해지고 주로 그리스어를 사용하며 토라를 읽고 있던 유대인들이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되돌아보고 칠십인역으로 알고 있는 헬라어 번역판은 당시 팔레스타인에 살았던 유대인들보다 율법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개방적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나중에 사도행전 6장에 설명된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은 초대 교회의 히브리화된 유대인들과 문제를 겪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곳에서 헬레니즘 유대인과 히브리적 유대인, 말하자면 헬레니즘 문화에 더 익숙해진 사람들과 팔레스타인에서 더 엄격한 사람들 사이에 논쟁, 논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아마도 여기에 그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어에서는 표현이 약간 다르지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에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일 가능성이 더 높지만, 호기심 때문에 예루살렘에 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오는 이방인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에 묘사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혹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당신은 이미 사도행전에서 그 내용을 읽었을 것입니다. 나는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만나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여겨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비록 그 용어가 그를 묘사하는 데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말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께 말한 백부장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여 우리 회당을 건축하였느니라. 어떤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사도행전 13장에서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청중들과 형제들과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의 설교가 마무리되면서, 여러분도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청중 중 이방인들은 이 모든 것에 대해 흥미롭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42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에서 나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회중이 해산될 때 다음 안식일에 이 일에 관해 더 이야기하도록 그들을 초대했는데, 많은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읽고 있는 NIV라는 용어는 유대교로 개종한 독실한 사람들을 담고 있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것이 좋은 번역인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유대인으로 간주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본문은 이 그룹을 유대인들과 구별하고 있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이들은 회당에서 일어난 일에 관심을 갖게 된 이방인들이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이교도 신들이나 그들 자신의 문화에 대한 황제 숭배보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으나 아마도 아직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시에는 유대교로 개종해야 했고, 남자의 경우에는 할례를 받아야 했고, 남자와 여자의 경우에도 이때에는 세례를 받아야 했을 것입니다. 유대교 신앙에 들어가기 위한 의식적 침수. 내 생각에는 이 사람들이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유대교의 다음 세대였던 것 같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들은 더 이상 부정한 이방인으로 분류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사도행전 13:43에서 이 용어를 번역하고 싶습니다. 바울이 그곳 회당에서 말하던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으며 그들은 그들과 이야기하고 그 안에 계속 있으라고 권면했습니다. 신의 은총. 그리고 시간을 들이면 사도행전에서 이와 같은 유형의 사람이 두 번 이상 언급되는 다른 곳도 몇 군데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 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주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나는 이 이방인들이 단지 길에서 벗어난 순진한 이방인들이었다는 것을 모릅니다. 아마도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이미 유대교에 어느 정도 동화된 이방인들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은 사도행전 13장에서 바울이 이스라엘의 역사와 예수님이 어떻게 메시아가 되셨는지에 대해 전할 때 말한 내용을 이해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 성취되었습니다. 어쨌든 여기 요한복음 12장 20절에 등장하는 다소 신비스러운 그리스인 들은 유월절에 유대인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그곳에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일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문제는 왜 이것이 내러티브의 이 시점에 소개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이 시점에서, 특히 예수께서 실제로 구체적으로 다시 오셔서 그들과 말씀하셨는지

여부에 대해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특별히 언급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에 대해 생각할 때 몇 가지 고려 사항이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예수께서는 기본적으로 자신이 하시려는 모든 일, 아마도 이스라엘을 위해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그분의 공개 사역은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이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는 사실을 암시했으며, 그들을 자기 안에 있는 유대인 신자들과 함께 모아 한 무리와 한 양 우리가 되도록하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더해 가야바가 정치적인 전략으로 한 말이 요한은 11장 52절에서 좀 더 영적인 의미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예수께서 1151년에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유대 민족을 위해 죽으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11:52에는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마도 그 점에 비추어 볼 때, 예수의 사역이 거의 끝나가고 이스라엘에게 충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강조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스라엘 외에 다른 나라에도 관심이 있다는 암시를 받았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그 주제와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이방인들은 예수 이야기의 의도된 보편적인 청중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이 결론을 내리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공관복음 전통에서 예수의 메시지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언급했다는 것을 확실히, 확실히 암묵적으로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공관복음 전통에서처럼 사도들의 사명이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이것이 요한이 그 효과에 대한 힌트를 던지는 방식일 것입니다.

John은 때때로 상징적이거나 조용한 방식으로 말하는데, 아마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여기서 하고 있는 일일 것입니다. 어쨌든 요한복음에는 여기 슬라이드 하단에 나열된 많은 본문이 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은 유대인의 죄가 아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단순히 아브라함의 후손만이 아니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4장에 따르면 하나님은 확실히 사마리아인들을 돌보십니다. 예수님은 6장에서 세상의 생명을 위해 주신 생명의 떡입니다. 8장에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빛이 아니라 참으로 세상의 빛이십니다. . 요한복음에 나오는 세상이라는 용어는 흥미로운 용어입니다. 나중에 비디오에서 이에 대해 논의할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확실히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2장에서 성경적 성취에 관해 매우 흥미로운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승리의 입성문에 인용된 본문은 공관복음 전통인 요한복음 12장 13절에서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군중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분을 맞으러 나갔고,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이는 본질적으로 지금 우리를 구원하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여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당나귀를 타고 마을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5절에 대한 언급은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나온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공관복음 전통에서 승리의 입성을 묘사하기 위해 인용된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12장 16절에 있는 요한의 해석에 따르면,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 모든 것을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에 대하여 기록된 것이며 이것이 예수를 위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말하는 것은 돌이켜볼 때에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편 118편과 스가랴 9장 9절의 참된 의미를 예수님의 오심에 적용하여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개선문에 있는 이 특별한 메모에 대한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17절에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그와 함께 있던 무리가 계속하여 소문을 퍼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사로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 주는 A와 같으며, 따라서 그는 예수님에 대해 많은 영광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간략하게 이야기해야 할 또 다른 것은 이 장의 결론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모든 표적이 37절에 반영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믿게 된 결과는 아니었는지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 침묵하는 반응, 분열된 반응,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믿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사야의 말의 성취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2장 38절에는 이사야서 53장 1절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전하는 말을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그런 다음 John은 또 다른 편집 논평을 합니다. 이런 이유로 그들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사야가 다른 곳에서 말한 바와 같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눈으로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40절은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따온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요한은 41절에서 이사야가 문자 그대로 그분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가 예수를 가리켜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예수의 영광을 보고 그에 대하여 말하였음이니라. 잠시 멈춰서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이사야서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높이 들리시는 것을 보고 천사들이 카도쉬, 카도쉬, 카도쉬,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그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었고 이사야가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말한 것은 일부분입니다. 그것은 상당합니다.

그것은 실제로 그분이 영광 중에 들려 올려진 만군의 주님이라고 말하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의 높은 견해에 대한 또 다른 명확한 본문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신성입니다. 그럼 예수님에 대한 묵묵한 반응이라는 주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은 왜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지 설명하기 위해 이사야 53장을 인용했고, 39절에서는 이사야 6장 9절 때문에 믿을 수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다음 42절은 다른 방식을 취 합니다. 42절에서는 많은 사람이 믿지 못하므로 믿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지도자들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John은 우리를 한 방향으로 데려가고 있고, 그는 우리를 다른 방향으로 데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문이 이미 7장의 시작 부분에서 읽은 내용과 앞뒤로 이동하는 방식에 의해 여기까지 인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에 대해 완전히 분열된 반응이 있었고 확실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를 믿는 사람은 적었지만 그를 믿는 사람은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42절에서 많은 사람이 자기를 믿었고 지도자들 중에도 그를 믿었다고 말합니다. 이제 잠시 멈추고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는 지도자 중 예수를 믿었던 유일한 사람은 니고데모였습니다. 실제로 니고데모는 7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방식에 있어서 최소한 어느 정도의 사법적 정직성과 성실성을 갖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9장에서 니고데모가 또 다른 공회 의원으로 밝혀진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한 내용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이스라엘 지도자들 중 다른 사람들이 그를 믿었다는 다른 명시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아마도 다른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John은 우리가 그 두 사람을 생각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고 믿을 수 없었다는 진술을 했습니다.

글쎄요, 일부 사람들은 심지어 지도자들의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가 그들에 대해 많이 알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미들우드 42절에 보면 그들은 바리새인들 때문에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 자기들의 믿음을 드러내놓고 인정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보다 인간의 찬양을 더 좋아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John에게서 계속해서 들려온 음표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다른 영상들도 많이 보셨다면 이 내용이 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 많이 이야기한 이유는 John이 그것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고 질문을 제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에 대해 계속적으로 반성하고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12장 11절에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승리의 입성으로 오시는 것을 믿었다는 것을 다시 듣게 됩니다. 나사로 때문에도 12장 11절 말씀대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 자체도 좋지만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더욱 예수를 죽이고 싶어 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기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 하고, 나사로는 예수의 능력을 증거하는 자라는 이유로 죽이려고 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칭찬보다 인간의 칭찬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다시 모호한 믿음의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었지만 공개적으로 예수를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의 많은 본문이 이 질문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묻고 싶은 질문은 그들이 진정한 신자였는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 생각할 때 결정하는 것이 제가 할 일이 아니라는 사실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그 질문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단지 하나님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나의 사역 범위에 대해 내 마음을 올바르게 유지해야 합니다. 나는 우리 믿음의 연약함과 믿음 안에서 인내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서로 격려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정직하고 진실되게 노력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어디에 서 있는지 어떻게 분류하거나 예측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나는 존이 우리가 그것을 반드시 알기를 원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것에 대해 더 명확 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분명해 보이는 한 가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열매를 맺고 신실하며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거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예수를 믿었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8장의 후반부에 가장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요한복음의 문헌만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믿음의 인내라는 관점에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조직신학을 가지고 요한에게 왔습니다. 나는 단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교회에서 믿음의 인내와 신자를 확보하는 것에 관해 무엇을 배웠는지 생각해 보고 본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과 일치하는 결론에 도달하십시오.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도 13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신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판단하고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대신, 아마도 우리는 요한복음 13장의 제자들이 배반에 직면했을 때 본질적으로 서로를 둘러보며 생각한 것과 같아야 할 것입니다., 혹시 나일까요? 그래서 저는 때때로 바로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이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일 수도 있나요?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복음 12장을 뒤로하고 이 장에서 예수께서 자신을 뵈고자 온 헬라인들의 존재에 대해 생각하셨는데, 이는 아마도 그의 사역이 끝나가고 있다는 표시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에게 공관 전통인 겟세마네 동산을 상기시켜 주는 본문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지금 내 영혼이 괴로우냐?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아버지, 저를 이 시간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아니, 바로 이런 이유로 이 시간에 왔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말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 당신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그러므로 이 시점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확증하는 하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앞으로도 영광스럽게 하리라. 군중이 들은 예수님의 반응에는 일종의 들을 수 있는 성격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천둥으로 해석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천사가 예수에게 말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모든 복음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예수께서 요한복음에 있는 우리의 본이시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셨으니 이는 단지 성령을 나누어 주는 일보다 더 큰 일이 있었음이니라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요한복음 12장 27절의 말씀을 되새길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어떤 어려움에서도 우리를 구해 달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합니까? 아니, 우리는 아버지, 당신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라고 말해야 합니다.

요한복음을 가르칠 때 Dr. David Turner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것은 14회기,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감, 요한복음 12:1-50입니다.